

精油社, 주유소營業 금지

주유소의 폴사인制度 도입

정부는 유통구조합리화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정유사들의 주유소營業을 금지하는 한편, 주유소의 폴사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8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정유사들의 석유유통시장 과다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취득하거나 소유권 및 영업권을 매입·임차하는 행위 및 위탁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현재 정유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는 모두 91개인데, 이중 油公이 44개, 湖油 41개, 京仁에너지 4개, 極東石油 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등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유소가 특정·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폴·사인제도(상표 표시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가짜휘발유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업자, 석유판

매업자가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하거나 석유판매업자가 가짜휘발유 등 허가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허가취소된 석유판매장소에서는 누구든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짜휘발유의 수송이나 보관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輕質油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비축·개발 등에 한정되어 있는 석유사업기금의 용도에 석유의 수송시설을 추가, 석유비축기금에서 장거리 송유관 건설에 따른 일부 소요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석유사업에 대한 정부관여를 축소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석유수출업의 신고제도 폐지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지난 8월 20일까지 종합, 석유사업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단에너지공급에 의한 지역난방이 실시된다.

또한 蔚山, 麗川공단을 비롯, 龜尾, 裡里 등 13개 공업단지외 서울 시제개발계획에 따라 대형신축건물이 들어서는 28개 구역에는 공동에너지공급 및 구역냉난방시스템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설치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韓電이 공동출자(1백 4억원)하는 지역난방주식회사(가칭)를 설립,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의 공급사업이란 실수요자마다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열생산설비를 통합, 단일 열원으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생산, 용도별로 분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덴마크, 핀란드등 북구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짜휘발유 합동단속

120개 표본단속, 30개 적발

동력자원부는 최근 감사원과 합동으로 가짜휘발유 단속을 벌여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온 30개 주유소를 적발, 허가취소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 2천 3백 50개 주유소중 1백 20개소를 표본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결과 25%인 30개소가 휘발유에다 값싼 솔벤트등을 섞은 부정휘발유를 만들거나 팔아 탈세와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지역난방주식회사도 설립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을 증대시

키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압구정동, 잠실, 개포, 고덕지구와 仁川주안지구, 果川지구에는 87년부터 연차적으로 집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비밀탱크를 설치해 놓고 대규모로 가짜휘발유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이들 가짜휘발유를 세금계산서 없이 주유소끼리 사고 파는 「無資料거래」가 많아 휘발유 특별소비세 탈세의 온상이 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자부는 올해 가짜휘발유에 대한 단속강화로 그동안 숨겨져 온 휘발유특소세 5백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7월말까지 휘발유소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반면, 가짜휘발유 원료인 溶劑(솔벤트) 판매가 55%나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제감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서울시내 2백70개 주유소를 일제조사한 결과 가짜휘발유가 범람하고 전반적으로 휘발유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가짜휘발유 10억 판매 주유소대표 구속영장

치안본부 수사 2대는 지난 7월 30일 공업용 솔벤트에 색소를 넣어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온 申孝植씨(51·全北 김제군 금주주유소대표)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申씨는 지난 83년 5월부터 금주주유소에 지하비밀탱크 3개를 마련, 공업용 솔벤트 등과 석유를 반반씩 섞어 드럼당 8만~13만원씩 받고 지금까지 10억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申씨는 지난 6월 4일 가짜휘발유 30드럼을 전북 7가 8056호 유조차에 싣고 全北 임실군 관촌면 병합리 사선대주유소에 팔려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났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압류된 유조차의 밸브를 열어

기름을 인근 논으로 흘러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송유관 현재로는 경제성없다 動資研, 88올림픽 자금소요로 투자순위 낮아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새로운 장거리 송유관건설은 경제성 확보면에서 오는 89년 이후에나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력자원연구소는 최근 관계당국에 제출한 「석유수송체계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국내경제여건을 볼 때, 우선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기본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막대한 내외자가 소요되고 있으며, 국내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LNG 受入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 이와 같은 상황은 장거리 송유관건설의 기회비용과 실제비용을 상승시키고, 또 中東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과 이에 따른 輕質석유제품의 수출확대, 국내석유수요의 輕質化와 시설상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수입증가 등은 송유관대상물량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력자원연구소는 또 장거리송유관 사업은 생산물의 純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代替性 투자로서, 기존 시설의 유희화를 가져오면서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 장거리 송유관건설사업은 빨라도 89년 이후에나 시작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력자원연구소는 장거리 송유관건설사업의 운영주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든 투자자의 시장참여에 대해 특별한 규제나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력자원연구소는 또한 석유수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제품교환속진을 통한 수송비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 43개 지역에서의 정유사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현행 전국 균일 수송비제도는 결과적으로 수송비차에 의한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원거리 수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송체계합리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수송비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정유사 판매가격에서 제외시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차를 정유사의 가격경쟁수단으로 이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協議會 발족 초대회장에 朴正基사장

국내 주요에너지관련업체들은 지

난 7월 30일 韓電회의실에서 韓國 에너지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초대회장에 朴正基 韓電사장을 선출했다.



대륙봉 7·8小區 油徵 발견 못해

韓日대륙봉 공동개발구역 제 7, 8 소구에서 양국은 석유시추 탐사작업을 벌였으나, 유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을 끝냈다.

7월 2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제 7 소구에서는 탐사시추 운영자인 韓國 燧 코암社가 제주도 남쪽 4백 km 지점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1 개구를 4 천 2 백 58m 까지 뚫었으나, 유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日本 측이 시추한 제 8 소구에서도 유정이 나오지 않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수상 油公 울산공장 방문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지 챔버스」 수상과 수행원 17명이 울산지역 주요 산업체 시찰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영접관 14명과 함께 지난 7월 22일 油公 울산공장을 방문하였다.

「조지 챔버스」 수상 일행은 먼저 潤대옥 공장장의 영접을 받으며 공장 본관 브리핑실에 들려 공장 소개 슬라이드를 본 다음, 潤대옥 공장장의 안내로 공장 전지역의 시설을 돌아보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남미에 위치한 면적 5, 123km², 인구 117만명의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등 막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어 84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7, 480달러에 이른 국가이다.

油公, 산업안전 결의다짐 7월18일 울산공장에서

油公 울산공장은 제18회 산업안전보건기간(7월1일~31일) 행사의 일환으로 사업주측 대표 潤대옥 공장장과 근로자측 대표 김형대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관리감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8일후생관 대강의실에서 산업안전노사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潤대옥 공장장은 이 자리에서 「슈퍼 돌핀」 건설에 공이 큰 2명의 공사감독원에게 사장명의로 표창패를, 7월중 심사한 우수 사용자 제안자 5명에게는 등급별 포상금을 각각 수여하였다.

▲슈퍼 돌핀 건설공로 표창수상자
박용환 건설사무소 공사감독원
이우남 건설사무소 공사감독원

▲우수제안 포상금 수상자
번개분임조(정비부, 공동제안5급) 15만원

거북이분임조(정비부, 공동제안5급) 15만원

양종선(정비부, 개인제안5급) 10만원

유병수(정비부, 개인제안5급) 10만원

정승구(정비부, 개인제안5급) 10만원

신설 선박계류시설 공식명칭 油公, 「슈퍼 돌핀」으로 명명

油公은 지난 6월 12일 공장 T-5 지역에 준공된 신설 선박계류시설의 공식명칭을 7월 24일 임원회의에서 「슈퍼 돌핀」(Super Dolp-

hin)으로 정식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김정석 엔지니어링 담당이사는 선경건설의 최유영 부장에게 「슈퍼 돌핀」 건설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사장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油公, 해외연수생 파견 경영 및 기술자 개발과정

油公은 85년도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로 정기철(석탄사업부), 유홍(기술개발부), 이면호(공무부) 사우를 각각 하버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대학에 보내 경영자 및 기술자 개발과정을 밟도록 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각각 경영학(석사), 고분자화학(박사), 기계공학(석사)을 배우고 연수종료와 더불어 회사로 돌아오게 된다.

油公, 하계휴양소 설치 설악산·진해해수욕장에

油公 공장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동해안 진해 해수욕장에 종업원 및 가족들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평일에는 100여명, 주말에는 250여명의 종업원 및 가족들이 휴양소를 찾았다.

공장은 종업원들을 위해 휴양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매일 울산 시내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 이용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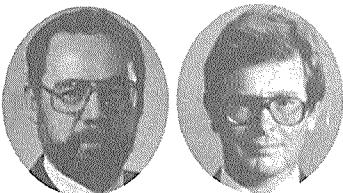
한편 油公 본사 산악회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달 동안 설악산 장수대에 하계 캠프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그동안 40여팀

의 80여명이 13개의 텐트로 구성된 캠프촌을 이용, 여름휴가를 보냈다.

油公, 공장 주소 변경 행정구역 분할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 7월 15일 테화강을 중심으로 중구와 남구로 나뉘어짐에 따라 공장 주소가 울산시 고사동 110번지에서 울산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로 변경되었다.

湖南精油 새임원선임 7월 5일 이사회서



T. Reiss

D. Wright

湖南精油는 J. P. 크랑카우스키 재무담당 부사장과 J. W. 엘리웃 기획조정담당 상무이사가 지난 7월 5일부로 사임함에 따라 동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그 후임에 T. Reiss씨를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D. Wright씨를 특수업무담당 상무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T. Reiss 전무이사는 1976년부터 濠洲 칼텍스 석유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D. Wright 상무이사는 1982년부터 泰國 칼텍스 석유회사에서 근무해왔다.

湖油, 하계휴양소설치 판교·여수·인천등 4 곳에

湖油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직원

및 가족의 여가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판교종합훈련소의 풀장을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장하였다.

후생부에서는 직원들의 적극이용을 위하여 본사와 판교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여수공장은 장구미와 쌍봉플장을 7월 16일부터 개장하였으며 인천저유소와 부산저유소도 각각 송도해수욕장 및 송정해수욕장에 한달간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하였다.

京仁, 油田개발 계약체결 금년 10월부터 시추작업

京仁에너지 기획관리실 이상민이사과 이정기부장은 인도네시아 Nauka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New York으로 출장, 지난 8월 20일 현지에서 유전개발 지분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Nauka 유전은 인도네시아 동쪽끝에 위치한 이리안 자야섬의 육상 밀림지대로 美國의 유명 석유개발 전문회사인 CONOCO, TEXACO, CHEVRON사와 프랑스의 TOTAL사가 7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유전개발계획을 체결한 후 물리탐사를 통해 수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Nauka 유전은 금년에 시추하는 1개구조의 가체매장량이 약 6억배럴로 추정되며 앞으로 시추를 확대하면 매장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있는 양질의 대형유전으로서 시추에 성공하면 89년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예정이다.

京仁, 李理事 해외연수 美서 경영자과정 이수

京仁에너지 이순중이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24일간 미국 남가주 주립대학에서 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미국내 석유류시장 동향파악후 귀국했다.

京仁, 하계휴양소 설치 사내 수영장도 개장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하기휴양을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새인천 유원지에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또한 사내수영장을 7월 23일부터 개장했다.

京仁, 기술연구소 설립 연구 및 공정개발 추진

京仁에너지는 지난 8월 8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경인에너지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았다. 경인에너지부설 기술연구소는 총 44명의 연구원 및 행정직원으로 7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본연구소 등록을 계기로 R & D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에너지자원의 연구개발 및 공정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京仁, 학생현장 실습 실시 仁川공장에서 1개월간

京仁에너지는 지난 7월 15일부

터 8월 14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85년도 학생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산업교육을 통한 노동정신 및 산업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이번 학생 현장실습에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을 비롯한 9개 전문대학생 22명이 참가했다.

京仁기우회 하계대회 회원들의 기력향상 위해

京仁에너지 기우회는 지난 7월 21일 한국기원 동안천지원에서 85 하계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들의 기력향상 및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雙龍, 진하에 하계휴양소 7월 17일부터 약 한달간

雙龍精油 직원과 직원가족을 위한 하계휴양소가 진하해수욕장(경남 울주군 서생면)에 개설되어 7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달간 운영되었다.

온산공장은 교통편의를 위해 매일 버스 2대를 울산 시내-진하간을 연결 운행하였으며 50인용과 25인용 텐트 2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편의를 제공하였다.

3개대학생 22명 실습 雙龍, 온산공장에서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動力資源部와 각 대학의 요청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학생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産學협동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제3조 2)에 따라 실시되는데, 실습교육은 대학에 따라 2~3학점을 취득해야하는 전공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참가한 대학생들은 3개대학 총 22명으로 대학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 화학공학과 7.1~7.6
- ” 공업화학과 8.5~8.10
- 울산대 기계공학과 7.1~7.20
- ” 전기공학과 7.2~7.20
- 삼척공전 화학공학과 7.3~8.3

極東, 리스설비 계약 서산공장 국산시설재로

極東石油은 지난 7월 31일 국내 최초로 대규모 플랜트설비에 대한 공동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동리스계약은 국제종합금융(주)이 주간사회사가 되어 새한종합금융(주) 및 한의종합금융(주)이 공동으로 참여한 270억원(32만 달러)에 달하는 국내최대규모이다.

이 리스설비는 현재 極東이 충남 서산에 시행중인 대규모 정유시설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國產시설재 공급에 사용된다.

極東, 산업안전보건행사 우수부서에 표창도

極東石油 부산공장은 제1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9일 「제1회 위험에지훈련 경연대회」를 가졌다.

7개 부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생산1과, 우수상은 생산4과 및 동력과가 차지하였다.

또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표어 및 포스터를 현상 공모하였다.

極東, 하계휴양소 설치 설악동 및 광안리 등에

極東石油은 종업원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 온 하계휴양소를 금년에는 설악산 설악동에 7월 17일부터 한달간 설치 운영하였다.

직원 및 가족은 등반과 함께 인근의 설악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회사는 교통편의 제공외에 숙박비도 일부 부담하였다.

이밖에 서울 근교에 수원과도포장, 고양군 소재 웨릭스풀장 및 워커히лл 맘모스수영장의 이용편의도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공장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제반편의를 제공하였다.

「오늘의 석유산업」增補版 석유협회, 1천부 추가발간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6월에 대외홍보용 책자 「오늘의 석유산업」 2천부를 발간한데 이어 지난 8월 6일 增補重版 1천부를 추가 발간했다.

석유협회는 지난 6월에 1차로 「오늘의 석유산업」 2천부를 발간, 회원사를 비롯하여 정부, 언론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는데 일부 회원사의 추가배포요청에 따라 이번에 다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연락처: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733-7127